

광양시,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1인당 최대 2천만 원 지원

광양시는 올해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한다.

참여요건은 광양시에 소재하고, 만 18~39세 이하의 1~4차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다.

해당 사업으로 ▲취업장려금(1년 차) 500만 원(청년 300, 기업 200) ▲고용유지금(2년 차) 450만 원(청년 300, 기업 150) ▲근속장려금(3년 차) 550만 원(청년 400, 기업 150) ▲장기근속금(4년 차) 500만 원(청년) 등 기업과 청년에게 4년간 1인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4대 보험 가입 및 체납 여부, 지원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부직적 대상자 확인과 기업체 평가 배점기준 등에 따라 3월 19일까지 지원기업과 청년을 선정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고흥군청소년문화의집 비대면 프로그램 호응

고흥군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겨울방학 프로그램 '슬기로운 집콕생활'이 지역 청소년 및 가족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진행되는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설명절 특집 프로그램으로 '행복하소 가족골든벨', '나도가수! 집콕복면가왕'이 청소년 온가족과 함께 특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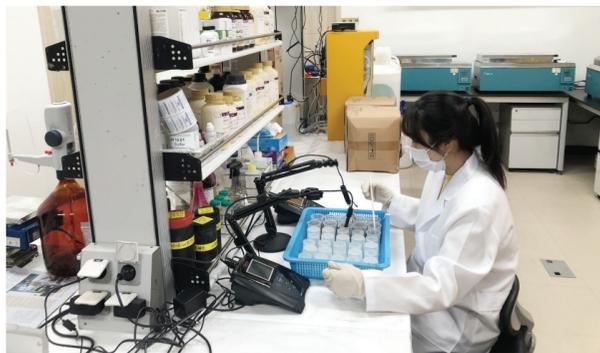
따라서 '캘리그래피', '한울한울 매듭공예'를 통해 온라인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다는 호평이 뒤따르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 및 가족의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청소년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보성군 “무료 토양검정으로 논밭 영양상태 알아보세요”

정확한 검사로 시비량 조절... 경영비 절감·토양환경 지키기 '1석2조'



보성군은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토양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토양검정은 토양의 산도(pH), 유기물, 유효인산, 규산, 양이온, 전기전도도 등 9가지 항목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땅의 영양 상태를 파악하고, 알맞

은 비료 사용량을 산출해주는 과학 영농 서비스다.

특히, 퇴비나 비료를 뿌리기 전에 실시하여야 검정 값이 정확하고, 사용해야 할 비료의 양을 계산할 수 있어 농작물 재배가 끝난 직후부터 작물을 심기 전에 검사할 것을 추천한다.

검정을 위해서는 농업인이 직접 토양에서 5~10곳의 지점에서 지표면의 이물질 제거 후 15cm 깊이로 균일하게 총 500g 가량 채취하여 시료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나 읍·면 농민상담소로 의뢰하면 된다.

모든 검정 서비스는 무료이며, 시료를 맡긴 후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검정이 끝난 후에는 현재 토양의 영양상태와 작목별 알맞은 밀거름, 웃거름 양이 표기된 비료 사용 처방서가 주소지로 우편 발송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친환경, GAP 인증 및 공익직불제 정책 등과 관련하여 토양검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작물이 재배되지 않는 농한기에 토양 검정 후 적절한 양의 비료를 쥬 경영비도 절감하고, 토양 환경 지키기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김택순 기자



순천시, 2030년까지 쓰레기 20% 줄인다

순천시는 2030년까지 쓰레기 20% 줄이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왕지매립장의 포화 상태를 비롯해 자원순환센터 가동중단, 클린업환경센터 임시 선정문제 등 악재가 겹치면서 예고된 '쓰레기 대란'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허석 시장은 지난 1월 '순천시 폐기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쓰레기 대란을 극복하기 위한 쓰레기 발생과 배출, 수집과 운반, 처리 단계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쓰레기 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하고 쓰레기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

시는 이에 따라 우선 '발생·배출' 단계에서 획기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선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 전개'와 '공공기관 종량제봉투 배출부서 실명제 도입', '재활용 분리배출 촉진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해 시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장바구니 이용,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 운동 전개 등 다양한 쓰레기 없애기(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전개한다.

또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담은 쓰담쓰담운동 및 SNS 인증을 비롯해 생활 쓰레기 줄이기 실천 수기 및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상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실제 쓰레기 줄이기 공모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해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24개 작품에 대해 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월부터 공공기관 종량제 봉투 배출부서 실명제 도입으로 각 읍면동과 행정복지센터의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재활용 분리배출 촉진 및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해 11월께 영농폐기물 숨은 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쓰레기 수집과 운반단계에서도 '쓰레기 수거 방식 개선 및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추진',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기 확대 설치 보급' 등을 통해 획기적 변화를 꾀한다.

시는 쓰레기 수거 방식을 현재 문전수거 방식에서 거점수거 방식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47곳에 설치된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을 2021년 57곳, 2022년 80곳 설치하고 2025년에는 150곳까지 확대해 거점수거를 늘린다.

또 제주도에서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준 재활용 도움센터를 2021년 중 시범 설치·운영해 효과 분석 후 2025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비용을 감량하기 위해 남은음식 표장용기 제작·공급 사업을 전개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방식도 그동안의 수의계약 체결 방식에서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청소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처리 단계에 대한 고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에 비중을 뒀다.

시는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생활폐기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왕지매립장 제방을 수직 증설해 예비용량시설을 확보할 방침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여수시, 문수청사 8개과 국동임시별관 이전한다

오는 27일부터 3일간 이전 완료...다음달 2일부터 업무 시작



사진은 문수청사가 이전하게 될 국동임시별관 전경

여수시가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조속한 이전이 불가피했던 문수청사 8개과를 국동임시별관으로 이전해 3월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동임시별관은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협동관을 리모델링한 곳이다.

오는 26일까지 문수청사에서 정상 근무하고, 주말인 27일부터 공휴일을 이용해 3일간 이전을 마치고 3월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국동임시별관은 지상 4층, 연면적 4,940㎡ 규모로 1~2층은 전남대학교와 공동 활용공간으로 지역자활센터 등이 들어서며, 3~4층에는 문수청사에 입주하고 있던 1국 2단 8개과 180여 명이 입주할 계획이다.

이전 부서는 해양수산복지국에 속한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 해양항만레저과, 섬자원개발과와 상하수도사

업단인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비롯해 도시시설사업단 소속 공영개발과다.

시 관계자는 “국동임시별관 이전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이전계획 수립 및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문수청사 부지를 매입,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와 청년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 여문지구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여수시의회가 '예산낭비'라며 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류'하고 관련 예산도 전혀 삭감하면서 어렵게 공모사업으로 국비 50억 원을 확보한 전남시청자미디어센터 유치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현재 여수시는 여수시의회에서 보류 중인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2건에 대해 철회를 요청한 상태이며, 18일 제20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